

태안군 양파재배 ‘전(全) 과정 기계화’ 박차 가해

태안군이 양파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배 전 과정(파종-정식-수확) 기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태안읍 도내리의 한 농가에서 관내 양파 재배 농업인과 도내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기계 정식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양파는 파종·정식·수확 전 과정에서 기계 화율이 매우 낮은 작목으로, 양파 재배 전 과 정 기계화 기술 도입은 태안 농업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 는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정식(아주심기)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군이 주 력으로 보급 중인 ‘448포트 공중육묘’ 기술에 호환되는 승용형 이식기로 정식 작업을 성공 적으로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양파 정식 과정은 전체 농작업 시간의 약 25%를 차지하 며, 기계를 사용할 경우 기존 작업 대비 90% 이상의 노동력 절감에 가능해져 농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대전 추억의 맛, 꿈돌이 가락국수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10일 대전관광공사, ㈜밀팡과 함 께 꿈돌이 밀키트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락국수·떡볶이·짜장면 등 3종을 12월 중 순차 출시해, 대전의 지역성과 전국적 보편 취향을 함께 담은 새로운 식탁 경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가락국수는 과거 대전역에서 즐기던 ‘추억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다. 대전 방문객과 시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따뜻한 한 그릇을 간편 조리로 구현해 ‘대전다 움’을 선명하게 전달한다.

함께 선보이는 떡볶이와 짜장면은 남녀노 소 호불호가 적은 ‘전국민 인기 메뉴’로, 일상 식탁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맛과 조 리 편의성을 균형 있게 설계했다.

㈜밀팡은 대전 동구에 기반을 둔 밀키트 유 통전문판매원으로, 부대표는 탤런트 김승수 다. 김승수 부대표는 대전시 홍보대사로도 활 동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 모델 확산에 힘 을 보탠다. 시와 껌씨패밀리, 밀팡은 제품 기 획-브랜드-유통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 하고,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라인업 확장과 관광 연계 프로모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 이·짜장면을 더해 대전의 이야기가 일상 식 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재방문·재구매 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채봉 기자

‘아랍’ 자본…외자유치 40억\$ 돌파해

충청남도, UAE 투자기업 하이티 등 차세대 기술 선도 4개사와 MOU



민선8기 합천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 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 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 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 로,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 성에 파란불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세플 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 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진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 범수 아산부시장, 이음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 (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 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 이티는 향후 5년간 유아이헬리콥터 와 공동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 예

산에 유아이에어모빌리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유아이헬 리콥터 기존 부지 내에 200kg급 고 중량 무인 화물드론 제조 시설을 구 축한다.

ABB 로보틱스는 천안에 향후 2000만 달러를 들여 사업장을 신축 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자동화·전 기화 기술 기업 ABB의 로봇 사업부 인 ABB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협 동 로봇, 자율이송 로봇 등을 공급 중 이다.

동진포리마는 홍성군 구항면 사업 장 인근 8617㎡의 부지에 2000만 달 러를 들여 차세대 친환경 바닥재인 엘브이티(LVT)를 추가 생산한다.

한일 합작법인으로 홍성에 본사를 둔 동진포리마는 고무·플라스틱 바 닥재 전문 기업으로, 원자재 구매부 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도가 유치한 외자는 40건 41억 4700만 달러로 늘 게됐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품격있는 녹색도시

세종시,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 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 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거리환경 을 조성해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높였 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 한 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우수한 가로경관 창출’을 목표 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상시관 리팀 운영 ▲시민참여형 ‘가로수돌보 미’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4월 ‘가로수 조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구간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토양 개량, 파녹지 조성, 고사목 다시 심기 (보식) 등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가로수 토양 개량을 병행한 띠 녹지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미세먼지 를 줄이고, 녹색경관을 확대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교목 약 4만 5,000주와 관목 7만 3,000㎡를 대 상으로 전정·관수·제조·방제 등 연간

유지관리 작업도 진행했다.

시정대로에는 삼각단풍을 활용한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해 시민이 즐겨 찾는 걷기 좋은 명품 거리로 가꿔 나 가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 는 1번 국도 일부 구간에도 가로수를 식재해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녹색 연결망을 구축했으며, 이를 연차적으 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시관리팀을 통해 가로수 관 련 민원 대응과 소규모 정비를 신속하 게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부터 ‘시민 가로수 돌보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현재는 14개 동 주민들이 가지치 기·정소·시비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가로수 돌보미로 활약하고 있으며, 시

가 자원봉사시간 인정, 물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가로수 생육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관리체 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일상 속에 씌 과 품격을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확대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세종형 가 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16일 까지 조치원1927아트센터와 산일제 사 일원에서 ‘2025 제8회 세종건축문 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세종, 안과 밖’ 을 주제로 영화 관람, 지역 우수건축 자산 및 대학생 공모전 수상작 전시, 초대작가전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 진다.

이채봉 기자

동구 드론 활용해 청사 외벽 청소

이차전지 박람회에 충청 산업관 마련, 10개 기업 지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0일 최 근 잇따른 추락재해 발생과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해 청사 외 벽 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매년 장마철 이후 인력 을 투입해 외벽 청소를 진행했으나, 고 층부 작업의 특성상 추락 위험이 상존 하고 작업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 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드론 기반 세척 방식을 도 입했다.

드론 청소는 고지대나 접근이 어려 운 구역까지 정밀하게 세척할 수 있어, ‘D’자 형태의 곡선형 구조를 가진 동구 청사 외벽 청소에 특히 효율적이다. 이 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청소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예산 절감과 청사 관리 효율성 향상 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드론 청소는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

목한 선도적 사례로, 향후 시설 점검이 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확산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 미가 크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드론은 미래세 대를 위한 핵심 기술이자 행정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청소 현장에 직접 도 입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시설 점검, 재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과학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5 펫비트(PetBeat) 페스타’가 반려가족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수의사 1:1 건강 상담 부스 ▲구강 관리 체험 및 위생 관 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 굿 즈 제작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및 행 동교정 상담 등 총 10여 개의 체험존이 운영됐다.

이채봉 기자

진천 친일재산 환수위한 첫발땀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 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 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이번 성과를 지난 8월 출범한 ‘친일 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 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 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

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단장을 맡 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자회견 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 의 책무”라며 “1차 조사의뢰서를 같은 날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개 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그 중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 사를 추진 중에 있다.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본 5필지를 광복회와 함 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뢰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 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일본 제국 주위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확인됐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 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 다고 봤다.

아울러 송 군수는 국가-지방 역할 분담형 환수모델에 관한 제도개선 건 의문을 함께 전달했다. 군은 나머지 의 심 토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2026년 삼일절을 맞아 국민에 게 알리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방침 이다.

이현진 기자

